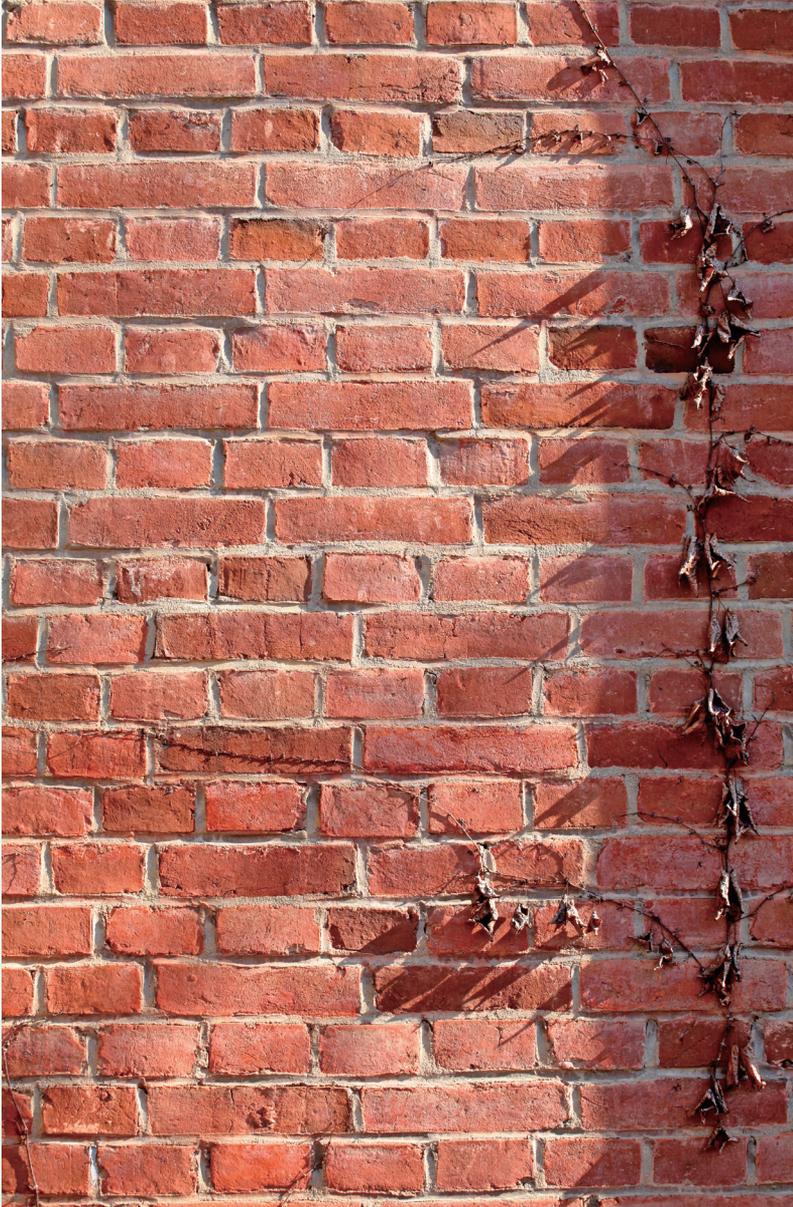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ubo.or.kr>



† 오늘의 전례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과 달리,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마태 5,17-37 참조)

구약 시대에 예언자들을 통해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
는 말한다.”라는 표현을 쓰셨
는데, 이제 하느님이신 예수님
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과연 말씀하실 자격이 있고
들으라고 요구하실 자격이 있
는 분은 주 예수님 한 분 뿐이
십니다. 이 분이 세상을 지으
셨으니 세상 물정을 다 아시
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사람
의 마음속을 아십니다.

대구대교구법원의 담
사진 _ 홍창익 비오 신부

제1독서 집회 15,15-20

제2독서 1코린 2,6-10

복 음 마태 5,17-37

입 당 송 주님,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화 답 송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영성체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율법에서의 한자 한획

장영일 크리스산도 신부 | 천주교 군위묘원 담당

10년도 더 전에 어느 지방의 본당 신부를 할 때의 일입니다. 겨울의 어느 주일날 새벽 미사 시간이었습니다. 강론을 끝냈는데 처음 보는 교우 몇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미사를 드리며 늦게 들어오신 그분들을 보았습니다. 영성체 시간이 되어 그분들이 제 앞에 오셨습니다. 성체를 모시려는 그분에게 “늦게 오셔서 성체를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와 미사를 마쳤습니다. 늘 하던 대로 문 뒤에 서서 인사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제게 다가와서 왜 성체를 못 모시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셔서 그렇다고 말씀드리자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늦은 것도 아니고 객지에 와서 겨우 성당을 몰아서 찾아 왔는데 이제 어디에 가서 또 미사를 드리느냐고 하면서 아주 서운해 하시며 돌아서셨습니다. 이분들의 서운해 하는 모습이 제 안에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바리사이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저의 군대 시절의 경험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철원의 전방 부대에서 후반기 신병 교육을 받으며 지내던 때의 일입니다. 추운 겨울, 눈에 덮인 부대에서 성탄절이 와도 성당에도 가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몸이 많이 아파서 읍내를 지나 상급 부대의 의무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나던 길에 성당을 보았고 귀대하는 늦은 저녁 시간에 동네의 성당 근처의 식당에서 인솔병과 함께 저녁을 시켜 놓고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저는 인솔병에게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옆의 성당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사제관 문을 두드리자 벽안의 노인 신부님이 나오셨고 몸에 맞지도 않고 때에 절은 군복의 저를 보시고 성당으로 데리고 가서는

묻지도 않고 성체를 영해 주시고 제 머리에 안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늦게 온 저를 찾아 다녔던 인솔병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욕을 들었습니다.

그날의 기억 때문입니다. 눈물 젖은 그날의 영성체는 제 안에 가장 감격적인 시간으로 간직해 있으면서도 다른 이들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기 보다는 원칙을 들이대는 저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그토록 나무람을 듣던 율법학자와 바리사이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복음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점 한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마태 5,18)라고 말씀 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엄하게 지켜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2독서는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1코린 2,7)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점 한획도 없어져서는 안 되는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지혜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펴서 일점 일획의 잘못도 없이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느님의 지혜이었습니까?

하느님의 지혜는 십자가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람을 향한 끝없는 용서, 무한한 자비와 사랑, 이것이 성경 말씀 안에 담긴 하느님의 지혜이며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을 성경 말씀 전체를 담아내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처벌과 단죄가 아니라 용서와 자비와 사랑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결국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겠습니다. **▶▶▶**

믿음의 길

살아 있는 가르침

윤중리 가브리엘 | 정평본당

시간은 영속적인 것이다. 시작도 끝도 없고, 끊어진 곳도 없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영속의 시간을 토막내어서 기억한다. 크게는 한 해, 작게는 한 달로부터 하루, 한 시간, 일 분, 일 초까지 세분해서 생각한다. 시간을 토막낸다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의 토막냄은 인간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한 토막을 지날 때마다 지난날을 반성하고, 그 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날에 대한 꿈을 꾸고 희망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1월, 우리는 다시 한 해의 첫 달을 걸어가고 있다. 1월을 가리키는 영어 재뉴어리(January)는 로마 신화의 야누스(Janus) 신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야누스는 앞과 뒤,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신이었다. 말하자면 뒤를 돌아다보면서 반성하고, 앞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것인데, 그런 의미 때문에 지난해의 끝과 새해의 시작이 이어진 1월의 이름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첫 달 1월을 살면서 지난해를 반성하고 새해를 설계함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다짐해야할 것인가? 나는 새해 들어서 이런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젊은 날에 읽었던 <중용(中庸)>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참되고 거짓 없음은 하늘의 도요, 참되고 거짓 없음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誠’은 보통 ‘정성스러움’, ‘성실함’, ‘최선을 다함’의 의미로 쓰지만 ‘참되고 거짓 없음’의 의미로 이해하기도 한다. 하늘의 도는 차치하고서

라도, 사람의 도는 마땅히 실천함이 도리 아니라, 그러려면 ‘참되고 거짓 없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할 터. 그게 뭘까? 그러다보니 성경 말씀의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마태 5,3)과 의미가 상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 물론 이 말씀은 오래 전부터 여러 번을 읽었지만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고, 갈릴래아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 예수님 산상설교의 현장인 참행복 선언 성당, 그 입구의 동판에 새겨져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의미를 알 수 없음은 마찬가지였다. 성경 주해서에는 쿼란 수도자들이 자기네들을 가리켰던 말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는 생각이었다.

‘참되고 거짓 없음’이 하늘의 도(道)요 성인의 경지라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한 참행복에 이른 사람이니, 세속의 허망한 욕심을 깨끗이 떨친 ‘높은 경지’를 이름에는 틀림없지 싶다. 우리는 마땅히 그런 경지를 향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치신 것이 2천 년 전이지만, 오늘까지도 이 말씀은 살아서 우리를 깨우치신다. 인간이 아무리 시간을 토막내어 봐도 그 영속성을 흠집 내지 못하듯, 세월이 비록 혼탁하다고 해도, 예수님 진리의 가르침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별처럼 생생하게 살아 있는가 싶다. **필문**

이번 호부터 매월 1회 교구 내 문필가들의 신앙 칼럼이 연재됩니다.



“ 이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동정녀, 그리스도를 마중나갔네 ”

스콜라스티카 성녀

문화홍보실



■ 성녀 스콜라스티카
(480~547년, 2월 10일)

“ 주님께서
제 청을
들어
주셨습니다. ”

천주교회의 성인들 가운데는 가족이 모두 성인이 되시거나 형제자매기간에 성인성녀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매기간인 베네딕토 성인(480~547년)과 스콜라스티카 성녀께서는 깊은 형제애와 영적 친교로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서방 수도생활의 한 기초를 놓으신 베네딕토 성인의 쌍둥이 누이동생이 되시는 스콜라스티카 성녀께서는 이탈리아 몬테카시노에 오빠가 세운 수도공동체에 들어가 베네딕토 수도회의 첫 수녀가 되셨습니다. 두 성인 남매께서는 가끔 만나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대화를 나누곤 하셨는데, 성녀께서 마지막으로 오빠를 만나던 날, 평소와는 다르게 밤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에게 조금 더 함께 있자고 청하며 붙잡았습니다. 성녀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오빠를 다시 만날 기회가 없으리란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네딕토 성인께서는 수도 규칙을 어길 수 없다하여 굳이 돌아가려고 하셨습니다. 성녀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잠시 기도를 바치니 청명하던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며 천둥 번개가 치더니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 성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성녀께서는 “오빠는 비록 제 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주님께서 제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두 성인 남매는 밤새도록 천상영복에 관한 거룩한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승에서 오빠를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임을 하느님께서 성녀에게 미리 알려 주셨던 것입니다.

스콜라스티카 성녀께서는 이 만남이 있던 지 3일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베네딕토 성인께서는 성녀의 유해를 수도원에 자신을 위해 마련해 놓았던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그 후 40일도 못되어 베네딕토 성인도 동생을 따라 선종하셨습니다. **▶▶▶**

은반 위의 목주반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전 세계인을 매료 시키며 역대 최고의 점수로 한국 피겨 사상 첫 금메달을 안겨준 김연아 선수.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스킬의 완벽함에 놀라워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시작 전 십자성호를 그으며 기도하던 모습과 시상대 위에서 눈물을 닦아내던 그녀의 오른쪽 손가락에 끼워진 목주반지에 주목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2008년 5월 성모님을 지칭하는 ‘바다의 별’이란 뜻의 ‘스텔라’라는 세례명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인 박미희 씨도 안나라는 세례명으로 함께 세례를 받았는데 모녀의 입교에는 열심한 천주교 신자로 당시 그녀의 주치의였던 조성연(요셉) 박사의 영향이 컸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세례 받은 직후 “세례를 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하다”며 “이제부터는 기도를 한 뒤에 경기장에 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 후로 줄 곧 링크에 들어설 때마다 성호경을 갖고 등장했고 기도 덕분인지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2009년 로스앤젤레스 세계선수권대회 1위,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 금메달 그리고 2013년 런던(캐나다) 세계선수권대회 1위 등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박미희 씨가 그녀가 부상에서 완치되지 않은 몸으로 스페인 세계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 출전했을 때 불안한 나머지 어느 수녀님에게서 받은 기적의 패를 딸의 치마(대회 무대의상)에 달아줬는데 그 대회에서 부상 투혼을 발휘해 팬들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

금주의 성인

2월 16일	성 오네시모(바오로의 제자, 주교, 순교자, 에페수스, 1세기경) 성녀 울리아나(동정 순교자, 니코메디아, 305년), 성녀 필립바 마레리아(동정녀, 1236년)
2월 17일	성 로만(주교, 트림, 450년경), 성 실비노(주교, 툴루즈, 720년경) 성 울리아노(순교자, 카이사레아, 309년), 성 테오도로(노인, 순교자, 카이사레아, 309년) 성 피난(주교, 이오나, 661년), 성 핀타노(신부, 수도원, 클로나그, 603년)
2월 18일	성 시메온(주교, 순교자, 예루살렘, 107년경), 성 콜만노(주교, 린디스파른, 605~676년경) 성 플라비아노(총대주교, 콘스탄티노플, 449년), 성 헬라디오(대주교, 톨레도, 632년)
2월 19일	성 바르바토(주교, 베네벤토, 682년), 성 베아토(신부, 신학자, 리에바나, 798년) 성 만수에토(주교, 밀라노, 690년), 성 메스로포(주교, 아르메니아, 441년경) 성녀 벨리나(동정 순교자, 트루아, 1135년), 성 알바레스(수사, 설교가, 코르도바, 1430년)
2월 20일	성 사도트(주교, 순교자, 셀레우키아 크레시폰, 342년) 성 엘레우테리오(주교, 순교자, 콘스탄티노플, 310년)
2월 21일	성 노엘 피노트(순교자, 1747~1794년) 성 베드로 다미아노(추기경, 교회학자, 오스티아, 1007~1072년), 성녀 베르다(순교자, 344년) 성 세베리아노(주교, 순교자, 스키토폴리스, 453년), 성 제오르지오(주교, 아마스트리스, 825년)
2월 22일	성 립네오(은수사, 5세기경), 성녀 마르가리타(재속3회원, 코르토나, 1247~1297년) 성 파스카시오(주교, 비엔, 312년)

■ 이용길 요한 신부님 은퇴미사



교구 총대리 이용길 요한 신부님의 은퇴미사가 2월 6일(목) 오전 11시 꾸르실료 교육관 대성당에서 봉헌되었다.

■ 학교법인 선목, 해은학원 신입교사 연수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2월 10일(월) 오후 5시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에서 2014 학년도 선목학원 및 해은학원 신입교사 16명과 미사를 봉헌하시고, 임명장을 수여하셨다.

대구대교구 공식 스마트폰 앱 출시!

교구 문화홍보실에서는 교구 스마트폰 APP을 개발하여 배포합니다. 교구 스마트폰 APP은 교구소개, 교구사제, 본당, 교구 내 성지, 대구주보, 교구소식, 매일미사, 매일강론, 팟캐스트 등 다양한 가톨릭 정보를 제공합니다.



설치방법

1.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 1) Play 스토어 실행
- 2) 검색란에 '대구대교구'를 입력하여 검색,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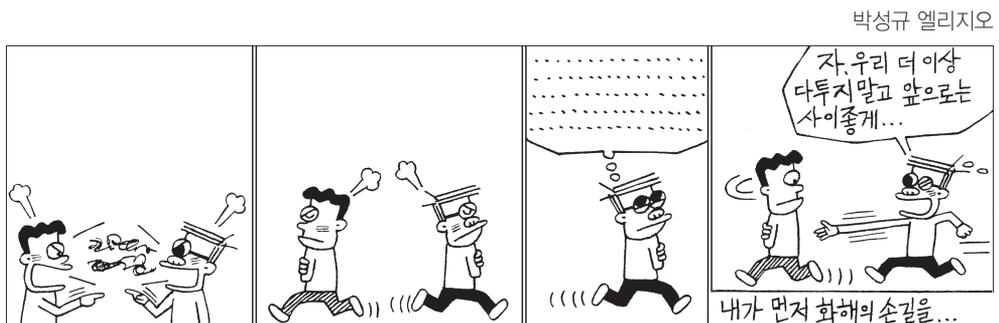
2. 아이폰 사용자

- 1) App Store 실행
- 2) 검색란에 '대구대교구'를 입력하여 검색, 설치

■ **특집방송안내**

(故) 김수환 추기경 선종 5주기 기념 KBS 열린음악회
 일시: 2월 16일(일) 17:40(80분간) / KBS1 TV

마음이 가라 앉으면



미사안내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2월 17일(월) 10:00 경산성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2월 17일(월) 11:00 수성성당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2월 17일(월) 10:30 범어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2월 20일(목) 10:00 평화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2월 17일(월) 11:00 죽도성당	-	-

성소 | 피정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2.21(금)~23(일)
 장소: 용인 성심교육관(차량운행)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 수녀회
 문의: 이카타리나, (010)4515-1114

교육 | 모집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 주말

318차: 2.21(금)~23(일)
 319차: 4.4(금)~6(일)
 14차 MR: 5.17(토)~18(일)
 장소: 한티 피정의 집
 문의: 대구ME, 983-0521

성체 신심 세미나

기간: 2.21(금)~23(일), 베네딕도수녀원
 내용: 현사조배, 강의, 참회, 면담성사, 안수
 강사신부: 하성호, 송재준, 현익현,
 변재홍, 정기모, 강혜경 수녀
 문의: 지속적인성체조배회, (010)5493-1819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창작사진: 3.3(월) 10:00
 오카리나성가: 3.3(월) 12:30
 성지순례스페인어: 3.4(화) 15:00

하모니카성가: 3.5(수) 13:00
 문의 및 신청: 254-6115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2014년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취득과정

접수: 1.2(목)~3.21(금)
 교육기간: 4.1(화)~6.27(금)
 장소: 교구청 교육원 가동 3층
 교육비: 50만 원, 문의: 255-7222

오순절평화의마음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 화 23:00~익일 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몰 앞 20:30
 수성구청 21:00
 문의: 차레지나, (010)9510-6962

마음으로 책임기(독서 치료)

일자: 3월 매주 화요일
 시간: 18:00~20:00 (2시간 10주간)
 장소: 남산동 성바오로서원 / 12만 원
 대상: 남·녀 (30대~50대 신자)
 문의: 성바오로수도회, 256-4592

5차원 전면교육 학습코칭리더십 특별과정

기간: 2.22~24(33차) / 2.27~3.1(34차)
 장소: 경북청소년수련센터 / 카페: 우아청
 대상: 초·중·고·대생 / 참가비: 26만 원
 문의: 살레시오수녀회, (010)3883-7004

대가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학점은행(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음악), 교회
 음악(성가교실, 지휘, 반주), 음악 1:1레슨,
 교양·문화강좌, 전문자격 / 취업 과정 등
 모집: 2.28(금)까지 / 개강: 3.3(월)
 장소: 감삼동 / 문의: 660-5556~7

15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아학연수

2차: 2.27(목) 8, 12주
 3차: 3.29(토) 8,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해외봉사인증서(학점인증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여성가족부인정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생 모집

기간: 3.18~6.17(매주 화) 9:30
 대상: 전문대졸업자 이상
 문의: 대구가톨릭상담원교육센터,
 253-1401

19차 외식사업 성공전략 심포지움

일시: 2.18(화) 14:00, 감삼동(무료)
 내용: 일본사례의 부실외식점포 혁신방안
 대상: 외식식품 경영자, 관리자, 창업예정자
 주최: 대구가톨릭대 보건과학대학원
 문의: 850-3177, www.oesikceo.com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서울 사무실 흥대 앞
 이원교(요안나) | 20년 경력
(053)471-0707 · 016-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안마의자 렌탈, 특가판매
 안마의자, 승마운동기
 로하스테크안마의자대구점
 오혜수(미카엘)
010-8956-9351 / 354-9020
 대구 동구 봉무동 이시아가구백화점 1층
 (무료체험실운영)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센터 **03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죽! 부활(엠마우스)
 이스라엘 일주(9일)순례단 모집
출발일: 4월 22일, 24일, 26일
직원 채용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방문접수 후, 면접 진행
T. 053)253-3399
 (주)성끼여행 조철래(유스티노)

유방 감상선 전문
여의사가 진료하는

마리아유외과
 반월당네거리 농협 3층
T.053)252-6875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053)255-9077
010-9447-5193

Volkswagen. Das Auto.
폭스바겐 대구전시장
 페이트, 투아렉, 티구안, 파사트,
 CC, 제타, 골프 등 시승 및 견적상담.
 Dealer 이 상 혁(다니엘)
010-9358-8383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병원 ~~~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병원장/의학박사 손찬락(라파엘)
365일연중무휴진료
 *평 일: 오전 9시 ~ 밤 12시 까지
 *토, 일, 공휴일: 오전 9시 ~ 밤 9시 까지
 ☎ 260-7777 (내선 260-7575)
 ☎ 260-7777 (내선 260-7575)
 서부정류장 관문시장역(구.달성군청리터)

2014년도 예비신학생 등록 안내

기간: 2.9(일)~23(일)
대상: 사제성소를 희망하는 중1~고3, 대학, 일반 등록비: 2만 원(1년) / 문의: 본당사무실
매년 새로 등록해야 하며 입시반(고3·대학·일반)은 1년간 결석없이 출석해야 2015학년도 대신학교 지원 가능합니다.

등록한 예비신학생은 입학미사에 참석

입학미사: 3.16(일) 14: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성당

행사 | 모임

뿌에리 칸포레스 창단 20주년 감사음악회

일시: 2.24(월) 19:30
장소: 아양아트센터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2.17.(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교육 | 모집

27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기간: 3.8~4.5(5주간, 매주토) 15: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아버지
신청비: 15만 원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21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개설 안내

기간: 3.13~4.10(매주 목 5주간)
시간: 9:30~14:30 / 회비: 10만 원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주관: 교구 가정담당
문의: 봉사자, (010)6784-7773

한국천주교회사 및 성지안내봉사자 4기 모집

기간: 3.7~7.11(매주 금) 19: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수강료: 20만 원
강사: 이찬우 신부, 담당: 서준홍 신부
문의: 상담, (010)2802-2703

평신도신학교육원 신학생경강좌 수강생 모집

성사론, 축일과 신자생활, 윤리신학, 요한묵시록, 성화와 성경이야기, 동양 철학, 대구의 신앙·역사·문화, 미사전례와 신자생활, 신·구약성경, 구약입문
다음카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

49차 선교대학

일시: 3.15(토) 10:00~16:00
장소: 계산문화관 / 수강비 무료, 증식제공
주제: 사람 낚는 어부
강사: 이관석 신부 / 선착순 100명
문의: 한국가두선교단, 781-6100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플룻, 바이올린, 오카리나, 통기타, 우쿨렐레, POP, 초크아트, 톨페인팅, 백세건강강좌(무료), 문의: 476-6211

관덕정 주관 3월 성지순례

일자: 3.16(일), 대전교구 진산성지
신청: 2.19(수)부터 선착순
회비: 3만 원(중식 포함)
문의: 관덕정, 254-0151

스페인어 초급반 모집

일자: 3.5(수)
오전반 10:00 / 저녁반 19:00
장소: 가톨릭근로사회관
문의: 253-1313

성요셉요양병원

(구, 논공가톨릭병원) 환우 모집

노인성질환(치매·중풍 등), 말기암 환우 영성치유 돌봄, 봉성체 장효원(요셉) 신부님 매일미사 봉헌
입원상담: 615-4871

채용 | 안내

산격성당 사무원 채용

자격: 미혼 여성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문의: 943-9030

SOS프란치스카의집 물리치료사 채용

마감: 2.16(일)~28(금)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허증사본, 등본
문의: 986-2077~8

대구가톨릭대 부설 어린이집 교사 채용

대상: 2~4년 경력(몬테소리 이수자 우대)
문의: 856-3033 / (010)2801-5729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100년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가대 르네상스 시대' 를
열어갑니다
2014. 5. 15
개교100주년
기념식
대구가톨릭대학교
100

 본도의 한방을 기쁨이
내일을 만드는
기적의 에너지가 됩니다!
정직한 본도
전화 한통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80-421-5151 (무료전화)
053)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 현 철 (베네딕도)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노블코리아
미혼 남녀의 백년가약! **결혼**
미팅횟수 채용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서류등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053)639-8998 박영주(젤마)
박요안나
상인정 홀름리스 맞은편 / 범어동 경신교 입구

 **성요셉요양병원**
(구, 논공가톨릭병원)
매일미사 상시고해·병자성사 봉성체, 병실순회 기도
치매·중풍·노인성질환 전문 클리닉 운영
24시간 전문간병인·의사·간호사 상주 진료
친화경적 병실 운영, 양·한방 협진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십견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통증의학전문/원장 이준석(이나시오)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내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2484 익스프레스
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반역기(파오로) 011-514-3855

대구 MBC TV 광고중
대구 웨딩홀에서 웨딩을 소망하러!
웨딩사랑
대구웨딩홀 웨딩박람회
2014. 2. 15(토)~16(일)
AM 11:00~PM 7:00
주요리타운2층 전관
(주요 동양백화점 맞은편, 연희내 주차장)
www.dgweddingmall.com
문의 053-425-8216 최창열 바실리오 010-9687-0500